

박기억 변호사의 판례평석

자궁질병 관련 수술 중 “양쪽 난소 절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될까? “대법원, 새로운 판례 탄생” 주목

대법원 2021.9.9.선고 2021다234368 판결... “질병치유 일한” “납입면제 사유 해당”
박기억 변호사, “보험사-소비자간 ‘납입면제 분쟁’ 새역사”... “주치의 소견 중요”

보험사-보험소비자간 소송戰이 점입가경이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금 소송’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코자 한다.

국내최고 보험법 전문가 박기억 변호사(現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제공하는 보험·손해배상 소송관련 판례평석이다.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보험편)으로 근무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보험약관엔 보험료 납입 면제 요건으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원고의 양쪽 난소 상실은 바로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납입은 면제돼야 한다. 설령 난소 절제가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원고는 암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 증식증 치료를 위해 양쪽 난소를 제거한 것이므로 치료의 일환으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은 면제돼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려면 원고의 양쪽 난소에 상해 또는 질병이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좌측 난소엔 아무런 병변이 없었음에도 난소암 등 예방을 위해 양쪽 난소를 모두 절제한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의 요지)

“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경우, 그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하급심선 인정하는 사례와 부정하는 사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터, 그간 보험사선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치료목적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complex endometrial hyperplasia with atypia)’은 자궁내막증식증 중에서 비정상 세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그렇다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될까?

최근 자궁 질병 관련 수술을 받던 중 양쪽 난소를 제거, 난소를 모두 잃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박기억법률사무소’ 박기억 변호사는 “‘전(全)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 제거술까지 받아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 말하는 장애, 즉 자궁내막증식증에 대해 치유된 후 양쪽 난소부위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이자, 보다 넓은 범주인 생식기관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같은 부위에 장애가 남게 된 경우로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경우, 그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하급심선 인정하는 사례와 부정하는 사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터, 그간 보험사선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치료목적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의 사이에 ○○암보험계약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납입 면제 관련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주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별표)장애분류표

1. 장애의 정의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후략)

1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2) ‘흥·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50%

원고는 폐경기에 들어선 이후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병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한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게 양쪽 난소 절제로 장애지급률 50%의 상태가 되었음을 사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는 난소암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했다.

■ 대법원 판단(주심 천대엽 대법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1] 보험사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원고에 대한 양쪽 난소 적제술은 오로지 예방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치료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고, 원고는 주치의의 확인서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양쪽 난소를 제거했다는 것이므로 예방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료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투었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은?

➡ 대법원에 따르면, 어떠한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해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이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해 수술이 그 중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선 담당 시술의의 시술 현장서의 전문적 판단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해 평가할 사항이지만, 그 시술 현장서의 판단에 특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지 사후적으로 그 치료(목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관련 보험계약의 해석상 환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떠한 수술이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예방 목적에만 머무르는지 등에 대해선 의료전문가 사이서도 견해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시술의 목적 및 필요성 등에 관해 그 평가의 전문성이나 진정성 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 환자를 관찰하고 수술을 행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궁내막암의 전단계인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진단되었다. 직접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수술 당시 관찰되는 자궁과 난소의 상태, 자궁내막암으로의 진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궁내막암의 표준적 치료법에 따라 난소절제술을 시행한 것이고, 실제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30~50%로 확인됐다고 하는바, 원고가 받은 위 시술의 목적 및 필요성과 관련해 그 전문성이나 진정성 등에 의심을 품을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수술기록지의 일부 기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예방 목적과 치료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 수술 방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쟁점2]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선 병변이 발견됐지만, 좌측 난소엔 아무런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좌측 난소에 아무런 병변이 없었으므로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원고는 반드시 재해나 질병이 훼손된 당해 신체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는데… 대법원의 견해는?

➡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장애’는 질병 등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서, 질병의 발생 부위와 훼손된 신체의 부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난소는 자궁에 연결된 부속기관으로서 자궁과 함께 여성의 생식기관을 구성하며 악성 세포가 난관을 통해 쉽게 전이되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주고받는 등 질병의 확대에 있어 자궁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자궁의 질병에 대한 의료조치의 결과로 난소가 훼손됐더라도 그것이 자궁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질병의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쟁점3]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며, “비록 절제 시술 이후 확인한 결과 난소 자체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었더라도, 시술을 담당한 의사의 시술 현장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의 목적을 겸해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 원심 법원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하면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여기서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며, 양쪽 난소를 잃은 경우는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로 분류된다. 그리고 원고가 자궁내막증식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 사건 수술로 양쪽 난소를 잃게 된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자궁에만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의미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즉 그것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유’의 일환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보험료 납입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이와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3, 4,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양쪽 난소 절제는 질병 치유의 일환으로 이루어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장해는 질병 등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서, 질병의 발생 부위와 훼손된 신체의 부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궁의 질병에 대한 의료조치의 결과로 난소가 훼손되었더라도 그것이 자궁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질병의 치유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자궁내막증식증과 달리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자궁내막암의 전단계인 상피내암으로도 분류되고, 이러한 의학적 근거에서 원고와 같은 폐경기 여성이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경우 자궁내막암에 준해 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절제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의료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점, ▲이를 난소암 등 관련 질환의 예방 차원으로 볼 것인지, 자궁내막증식증의 치료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해 의료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수술 집도자는 자궁내막암에 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행위로서 원고의 자궁을 적출함과 동시에 양쪽 난소 절제를 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난소는 자궁에 연결된 부속기관으로서 자궁과 함께 여성의 생식기관을 구성하며 악성 세포가 난관을 통해 쉽게 전이되거나 호르몬의 영향을 주고받는 등 질병의 확대에 있어 자궁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궁적출술과 함께 난소 제거술까지 받아 양쪽 난소를 잃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 즉 자궁내막증식에 대해 치유된 후 양쪽 난소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이자, 보다 넓은 범주인 생식기관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로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일부 예방적인 요소가 공존한다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박기억 변호사의 간단 논평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가 동일한 수술에 대해 2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각각 보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따로따로 제기했고, 선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상태에서 후행 사건으로 다루어진 사건이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사건이 같은 경우엔 선행 사건의 결론을 따라가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선행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패소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보험사 측이 관련 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내세우면서 원심이 이미 확정 판결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는 것은 위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다. 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양쪽 난소까지 절제한 경우, 그것이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로 볼 수 볼 수 있는지에 관해, 하급심은 인정하는 사례와 부정하는 사례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기에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박 변호사는 “선행 사건서 그러한 법리가 선언됐으면 하고 바랬지만, 기대와 달리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했고, 결국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요원한 상태가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후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서 확정된 결과와 정반대 판결을 선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약관은 보험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확인할 충분한 기회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판단자 개개인의 성향·가치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다행히 원심 재판부가 큰 용기를 내 제대로 된 법리에 따라 제대로 판시했고, 대법원도 최초의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그간 보험사선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치료목적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으나 이제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서 억울한 보험소비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Ins**

정리_유은희 기자